

제74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비성경적 교리와 신학 단호히 배격

WEA 서울총회 반대, 종교다원주의·세속화 교회침투 경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엄하석 목사)는 제74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를 지난 9월 11일(목) 오후 1시, 경기도 안양 은혜와진리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실행위원회는 전국에서 60여 명의 전임총회장, 실행위원(교단 전국지방회 회장 및 총무, 교단 기관장, 위원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교단 현안을 보고하고 향후 사역 방향을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1부 예배는 교단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일산지방회장 조영란 목사의 기도예배에 이어 총회장 엄하석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엄 목사는 약 4:13-17 말씀을 본문으로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람은 내일을 마음대로 계획하고 확신하려 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며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했다. 이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모든 일정을 주님의 뜻 안에서 겸손히 고백해야 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는 고백이 참된 믿음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회원 모두를 축복하며 성령 안에서 교단과 교회의 미래를 함께 세워가자고 당부했다. 설교 후 전임총회장 진동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곧바로 정책위원회 조용목 목사는 그동안 한국교회를 위하여 특별기도회 및 세미나, 포럼을 하면서 한국교회의 바른 성경,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의 지침을 전하고 정통성을 강조하며 교회의 바른 길을 제시해온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웅 목사)의 노력을 격려하고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발간된 기념 책자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세미나자료와 설교 모음집을 소개했다.

이울러 조 목사는 비 성경적인 교리와 신학, 종교다원주의와 세속화의 교회 침투를 단호하게 경계하고 배척하도록 각성시키는 일에 적극 힘쓰고 있음에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2부 실행위원회는 총회장 엄하석 목사의 주제로 진행됐다. 회원점명, 개회선언, 전회의록 낭독

및 총무 보고가 이어졌다. 총무 오세준 목사는 사이버신학연구원과 사이버목대원 2025학년도 2학기 개강 소식, 2026년도 목사고시 서류심사 결과와 오는 9월 29일 목사고시 대상자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보고했다. 이어 재무 최정식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백영자 목사의 지출보고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역자가임 청원 △전도사임명 청원 △교회주소·명칭 변경 보고 △교역자사임 청원 등의 안건이 결의 및 보고되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9월 22-24일 춘천오순절기도원에서 열리는 교단 부흥사회 영적재무장 성회 △9월 22-26일 미국 미네소타에서 개최되는 세계하나님의성회 선교위원회 국가리더회의 참석 △10월 13-15일 여교역자국 추계세미나(명창대림벤엘수양관) △10월 20-22일 제13차 전국사모연합회 단합대회(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등의 주요 행사 일정을 공유했다.

또한 선교사들의 현지 의료보험 및 유사시 협력과 지원 등을 위해 KWMA(한국세계선교협회)에 가입하기로 했음을 보고했다. 아울러 실행위원들은 △감염병 확산 예방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 공조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며 한국교회와 교단의 사명을 다시금 다짐했다.



교단 제74차 총회 제4회 임원회

차금법 저지 및 저출산 극복과 성평등가족부 개편 저지

“성령안에서 교단과 교회의 미래를 함께 세워가자”...자유민주주의 수호·한미동행 강화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총회장 엄하석 목사)는 지난 9월 11일(목)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 회의실에서 제74차 총회 제4회 임원회를 열고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며 주요 안건들을 협의했다.

임원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대표기도, 총회장 엄하석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엄 목사는 약 4:13-17 말씀을 본문으로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람은 내일을 마음대로 계획하고 확신하려 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며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했다. 이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모든 일정을 주님의 뜻 안에서 겸손히 고백해야 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는 고백이 참된 믿음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회원 모두를 축복하며 성령 안에서 교단과 교회의 미래를 함께 세워가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서기 문찬우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엄하석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보고(오세준 목사), 재무보고(최정식 목사), 회계보고(백영자 목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총회장 엄하석 목사의 주제로 진행됐다. 회원점명, 개회선언, 전회의록 낭독 및 총무 보고가 이어졌다. 총무 오세준 목사는 사이버신학연구원과 사이버목대원 2025학년도 2학기 개강 소식, 2026년도 목사고시 서류심사 결과와 오는 9월 29일 목사고시 대상자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보



고했다. 이어 재무 최정식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백영자 목사의 지출보고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역자가임 청원 △전도사임명 청원 △교회주소·명칭 변경 보고 △교역자사임 청원 등의 안건이 결의 및 보고되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9월 22-24일 춘천오순절기도원에서 열리는 교단 부흥사회 영적재무장 성회 △9월 22-26일 미국 미네소타에서 개최되는 세계하나님의성회 선교위원회 국가리더회의 참석 △10월 13-15일 여교역자국 추계세미나(명창대림벤엘수양관) △10월 20-22일 제13차 전국사모연합회 단합대회(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등의 주요 행사 일정을 공유했다.

또한 선교사들의 현지 의료보험 및 유사시 협력과 지원 등을 위해 KWMA(한국세계선교협회)에 가입하기로 했음을 보고했다.

한편 임원들은 회의 중,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해 특별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출산 극복과 성평등가족부 개편 시도 저지, 사이버 집단의 미혹 방지와 올바른 신앙 교육 강화,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 북한의 무력 도발 중단과 핵무장 억제, 한미일 협력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합심 기도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미군들의 헌신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임원회는 단순한 회무 처리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교단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미래를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무엇보다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붙잡고,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사역자로 사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프로초장은
누구나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기도(4)

조용목 목사

“**이러하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엡 1:17~19, 3:14~19)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으로 즐거운 성도가 되기까지는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위인들이 기도한 내용들과 당시의 상황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기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사람이 연구하고 관찰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지 않으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너희 마음눈을 밝혀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신령한 일에 대한 인식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 사이에도 인식 능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교인들의 마음눈을 밝혀 주시기를 구한 것은 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에서 우리나라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눈이 밝아지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습니다.

첫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환난이 유익이 된다는 소망, 핍박받는 것이 복이 된다는 소망, 주의 일에 수고하면 만차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게 된다는 소망, 죽음의 순간에 천국으로 간다는 소망, 육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둘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은 하늘에 쌓아 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행복입니다. 셋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는 능력, 핍박과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기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겸손과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속사람은 영적 자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속사람이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좇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낙담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계신 것을 인식하고 느끼는 깊이에서 차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음을 깊이 인식하고 느끼게 되면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기쁨과 평안,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며 함께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체험하면 더 깊고 더 풍성한 사랑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즐거워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과 비례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고, 그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2026 목사고시 접수자에 대한 서류심사 실시

교단 고시위원회(위원장 이석호 목사)는 지난 9월 8일(월) 오전 11시 총회 회의실에서 2026년도 목사고시 접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류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응시생들의 자격과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며 고시 준비과정의 공정하고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했다.

서류심사에 앞서 드린 예배는 서기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고시위원 이문근 목사의 대표 기도예배에 이어 고시위원장 이석호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삼상 16: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와는 중신을 보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과 신앙의 자세를 보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자신의 능력이라

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무엇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목사 임직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고시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자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곧바로 이어진 회무에서 위원들은 제출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하는 등 고시 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했다. 이어 고시위원 이문근 목사의 폐회기도로 2026 목사고시 접수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2026년도 목사고시 오리엔테이션은 오는 9월 29일(월) 오전 10시 총회본부 예배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관운영세칙 개정 절차 진행

한기총, 제36-7차 임원회 개최, 개정위 구성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9월 5일(금) 오전 1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6-5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참석 32명, 위임 2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며, 개회선언, 전회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토의에 앞서 지난 임원회에서도 논의되었지만, 위임은 임원회 성수에 대한 부분으로 국한하고 의결은 출석 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됨을 재차 확인했다.

감사 임면의 건으로 이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것을 대표회장이 변호사 자문을 통해 설명하고, 감사 오경태 장로의 그간의 수고에 대해 박수로 치하했다.

‘감사는 임원회가 선정하여 실행위원회에 추천하고, 실행위원회에서 인준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추천된 감사 1인과 공인회계사여야 하는 감사 1인의 선정을 대표회장에게 위임하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관운영세칙 개정위원회 임명의 건



으로 고경환 대표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임대표회장 3명(엄기호 목사, 엄신행 목사, 정서영 목사), 명예회장 3명(김용도 목사, 이승렬 목사, 박홍자 장로), 공동회장 2명(심하보 목사, 윤광모 목사)으로 구성된 위원회 임명안을 가결했다.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이 안건을 다루며 임기 1년의 대표회장의 연임 가능 횟수를 현재 2회에서 1회로, 사무총장의 임기는 현재 3년의 1회 연임에서 대표회장

과 같이 1년의 1회 연임으로 각각 줄이고 싶다는 것과, 대표회장의 임기를 더는 늘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정서영 직전 대표회장은 “대표회장 연임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개정한 것엔 다 이유가 있다. 아무도 대표회장을 안 하려 하니 (대표회장 임기를 최대) 3년으로 해 놓고 후보가 안 나타나면 (현 대표회장이)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예장 보수합동 제110회 총회 개최

이광용 총회장 재추대... 새벽기도·성경보기 운동 통해 부흥문화 회복 다짐

대한예수교장로회 보수합동(총회장 이광용 목사)은 지난 9월 11일(목) 서울 상암동 총회본부에서 제110회 총회를 열고 한국교회 보수개혁 신학의 정체성을 지키며 부흥을 회복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광용 목사를 총회장으로 재추대하고, △한국 장로교 신학 정체성 수호 △한국교회 재부흥을 주요 아젠다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광용 총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한국교회가 마주한 현실은 심각하다.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앞세운 WCC와 WEA가 신학의 순수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보수합동은 이를 단호히 배격하고 한국교회를 수호하기 위해 깨어 일어나 소리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는 한국교회 재부흥을 위해 전교 단적으로 새벽기도 회복운동과 성경보기 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목회자들의 영적·신학적 자질을 높이기 위한 연장교육을 실시하고, ‘바른교회, 바른신앙, 바른성경’ 세미나를 분기별로 개최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단은 국내외 선교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예장총연(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은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매년 세미나를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그간의 결실을 담은 638페이지 분량의 세미나집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조용목 목사, 정성구 박사, 박형용 박사, 김의환 박사, 차영배 박사 등 한국교회의 대표적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강의문이 수록되어 한국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거룩한방파제 제7차 국토순례 ‘전진’

7일차 여정 교회수호 의지로 힘찬 행진 중

거룩한방파제 국토순례단(단장 홍호수 목사)의 제7차 국토순례가 거룩한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제7차 국토순례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양화진선교사묘원에서 선포식과 출정식을 가진 뒤 현재 7

일째 여정을 잊고 있다.

이번 국토순례는 27일까지 총 656km 구간을 도보로 행진한다. 서울 양화진을 출발해 안양, 군포, 화성, 평택을 거쳐 천안, 세종, 부여, 서천, 군산, 김제, 고창, 영

광, 함평, 무안, 신안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여정 곳곳에서 제암교회, 군산 구암교회, 금산교회, 영산교회,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등 순교의 현장을 방문해 기도회와 영적 선포식을 드린다. 순례단은 “차별금지법 반대”와 “신앙·가정 수호”를 분명한 메시지로 내세우며 한국교회의 신앙 수호를 외친다.

순례단을 이끄는 홍호수 목사는 “국토순례는 단순한 걷기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영적 순례”라며 “아스팔트 위에서 예배하며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절감했듯, 이번 여정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가 지켜진 나라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CTS-서울신대, 아프리카 교육선교 위해 손 잡아

“사중복음으로 아프리카 깨우는 열매 맺어지길”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와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 이하 서울신대)가 9월 10일 CTS 컨벤션홀에서 ‘아프리카 복음화와 교육선교 활성화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감경철 회장은 “한 세기가 넘는 역사와 전통의 서울신학대학교와 아프리카 교육선교를 위해 동역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140여년 전 한 반도를 일깨운 선교사님들처럼 사중복음의 정신으로 아프리카를 깨우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신학대학교 황덕형 총장은 “CTS라는 전문적인 동역자와 함께 아프리카 교육선교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지난 114년간 쌓아온 서울신대의 신

학적, 선교적 역량을 다해 아프리카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CTS와 서울신학대학교는 △아프리카 선교 및 교육 선교사역 공동 추진 △단기 및 장기 선교사, 연

구원, 학생 파송 및 지원 △기타 양 기관이 합의하는 협력 사항에 대한 업무협약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이어서 서울신대와 탄자니아 아프리카연합대학교(총장 김성수, 이하 UAU)의 업무협약식도 진행됐다.



‘아동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영남권역 포럼’

월드비전, 부모-자녀 관계 향상의 중요성을 알려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지난 9월 3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아동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영남권역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개최된 ‘아동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호남권역 포럼’에 이

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아동정신건강 증진에 있어 부모-자녀 관계 향상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정 및 학교 현장에서 실천 효과를 공유하는 한편, 가족 중심 개입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사회에서 적용 및 실천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

고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김미애 부산 해운대를 국회의원의 환영사, 김순이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 본부장의 인사말, 배소연 부산울산정신재활시설협회장, 김성완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장 등의 축사로 시작했다. 이어 사례 영상 상영과 주제발표,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첫 주제발표는 유은라 부산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외래교수가 ‘아이만 치료하면 충분할까?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호자의 역할 재조명’에 관해 발표했다. 유 교수는 아동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아이 개인의 상담치료뿐 아니라 보호자 및 부모와의 관계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헌보 목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유감

부산 세계로교회,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

부산 세계로교회가 손헌보 담임목사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계로교회는 9일 성명서에서 “부산 세계로교회는 손헌보 담임목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세계로교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조치이며 검찰과 법원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먼저 헌법 위반 주장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제시했다. 형사소송법 위반 주장의 근거로 세계로교회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구속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며 구속 요건으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세계로교회는 손헌보 목사가 이러한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성명서는 “그간 손헌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는 5월 12일 부산경찰청

의 부당한 압수수색에도 응하였으며, 6월 13일 부산경찰청에서 오전 9-17시까지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성명서는 “부산 녹산, 명지 지역에서 30여 년간을 거주하며 목회해온 목회자를 ‘도주 우려’로 구속 결정을 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구속영장제도를 명백히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손헌보 목사가 △일정한 주거가 있고(30여 년간 동일 지역 거주)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며(성실한 수사 협조) △도주 우려가 없다(지역 내 목회 활동 지속)는 논리로,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세계로교회는 “이번 사태는 대통령실과 사법기관의 한국 교회에 대한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12회 서울시 장기기증의 날 기념행사’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서울광장에서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유재수 목사, 이하 본부)는 9월 8일(월) 오전 10시, 서울광장에서 ‘제12회 서울시 장기기증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본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윤 씨를 비롯한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과 생존 시 신장기증인, 장기 이식인 등 110여 명과 시민 600여 명이 함께하며 생명나눔의 가치를 나누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8가정에 ‘생명의 별’(기증인의 사진과 기증연도가 새겨진 크리스탈패)을 전달하며 고귀한 헌신을 기렸다.

2012년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뒤 7명에게 새 생명을 나눈故 김휘중 씨(당시 27세)의 어머니 김규린 씨는(67세)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미래를 열어줄 줄만 알았던 휘중이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며 장기부전 환자 7명에게 새로운 미래

를 선물했다.”라며 “아들을 떠나보내는 극심한 슬픔 중에도 생전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였던 휘중이의 마지막 약속을 지켜주고 싶어 장기기증에 동의했다.”라고 전했다.

‘2025기아대책 제5회 아동청소년복지포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사회적 연결 방안에 대해 모색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지난 9월 2일 서울 중구 패럴타워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주제로 ‘2025 희망친구 기아대책 제5회 아동청소년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주배경아동, 사회

적 연결을 위한 6가지 시선’을 주제로,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직면하는 ①돌봄 ②교육 ③진로 ④편견과 차별 ⑤사회적 관계 ⑥제도적 시각 지대 등 6가지 구조적 장벽을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연결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당사자부터 현장 전문가, 정책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실제 사례를 담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본격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신소연 기아대책 이주배경사업팀장은 ‘이주배경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마주한 세 개의 장벽’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하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제도적 장벽과 개선 필요성을 조명했다.



■ 생명의 말씀 ■



안 태 군 목사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지부회
- 하복한교회
- 신약학박사(Th.D)

할렐루야! 5월 31일(토)자 목양지에 게재한 창세기 1장 강해에 이어,오늘은 창세기 2장 강해를 올려 드립니다. 창세기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으로 2장은 시작됩니다. 모자랄 것도 더 추가할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2절은 이를 확인하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이 다 하므로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미 창세기 1장 강해에서,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거룩한 희생을 통한 영원한 나라와 그의 의 회복으로 이루어진 새 하늘 새 땅에서의 안식까지 상징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후 벌어질 갈등과 위기를 가운데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을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르러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만물이 이러하니라”라는 말씀으로 주제의 초

에덴의 중심, 생명과 선악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1-25

점이 바뀝니다. 사실상 2장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첫째, 창조의 경위, 둘째, 에덴의 중심, 셋째, 아담과 하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창조의 경위를 보겠습니다. 5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초목이 그것을 경작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립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우리는 열악한 환경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환경은 경작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 안에서 준비되어 일어나는 그 즉시 환경은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곤, 창세기 2장 7절에 이르러,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어진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가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됩니다. 7절은 흙으로 지으신 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므로 생·령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이미 만들어지고 채워진 존재입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더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뉴에이지 운동이나, 인본주의자들이 속삭이듯, 스스로 개발하여 남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이켜, 그의

은혜로, 우리를 얹어맨 모든 죄의 결박을 끊어, 하나님이 이미 채우신 걸 드러내거나, 혹은 회복할 필요가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개발과 노력으로 다른 이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는 일은 있을 수도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어 의지함으로 주시고 이끄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밝히 드러내는 존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활동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합치할수록 더욱 빛날 것입니다.

둘째, 에덴의 중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인류 최초의 낙원으로 알려진 동방의 에덴을 만드시어 그곳에 두십니다. 에덴의 위치는 그곳에서부터 흐르는 네 강을 추적하여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24절의 기록으로도 알 수 있듯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최초의 낙원, 에덴은 하나님에 의해 이미 인간과 단절된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다시 찾을 수도, 닿을 수도, 만들 수도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 곧 하나님의 시간과 그의 은혜로 이루어질 그 궁극적인 이상향에 대한 상징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2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 최초의 이상향을 그의 지으신 사람에게

맡겨 다스리고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적인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3장에서 곧 밝혀집니다. 그 이유는 2장 9절 후반 절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둘 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제한을 두심으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선악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모르는 이들에 의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인간은 정의의 실현하기 위해 세계는 많은 갈등과 전쟁과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여전히 치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인간이 중심이 되어 다루는 한, 에덴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은 주관적이지도, 그렇다고 사람들 대부분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도 객관적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기록되었듯이,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을 장소는 사람의 함의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인간이 정

한 곳에 있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이 그곳에 두셨다는 걸 주목해야만 합니다. 에덴의 중심, 생명과 선악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아담과 하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은 아담과 하와의 기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2장 23절에서 아담은 이렇게 외칩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족 여자와 칭하리라 하니라” 이 기록을 두고, 남녀 관계를 종속적으로 이해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라는 기록을 볼 때, 오히려 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2장의 마지막 절인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옷이 벗겨진 상태는 수치의를 의미하고 이 수치는 성경에서 대개 죄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지금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죄의 위기 앞에 놓여 있되 죄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임을 암시합니다.

이 상태는 아직 죄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옷을 입기까지지는 늘 죄의 위기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인류의 근원적인 한계를 상징합니다.

가 보이고 있는 ‘종교관’은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정치나 권력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권력 쟁취가 목적이겠으나, 종교는 그렇지 않다.

신(神)에 의한 신성한 계시와 말씀을 따라,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 부정에 대하여 옳은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것은 타협이나 명령이나 억압으로 잠재울 수 없다. 그래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언제나 종교에서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왔다.

그런데 작금에 벌어지는 행태는 종교 핏박을 통하여, 오히려 종교와 종교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일깨우고 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를 자신들에게 굴복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보거나, 세상에다 종교 지도자를 ‘망신주기’식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보는 순간, 불행은 싹튼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교회를 적으로 돌려 정권에 유익이 되나?

최근 이재명 정부가 교회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더하고 있다. 부산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세계 최대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세계침례교단 회장을 지냈고,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에게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더니, 이제는 ‘특검’에서 출석하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왜 역대 정권에서 하지 않던, 일들이 새 정권에서는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이는 교회에 대한 탄압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25일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만나는 현장에서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에 의해 교회에 대한 급속 소식은 나쁜 소식’이라고 하였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일수록 종교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 정권은 교회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대로 예배를 변형시키고, 현장 예배를 중단케 하였다. 명백히 ‘종교 탄압’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해외에서 우려하는데도,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와 인물들에게 참고인이라면서도 압수수색을 했고, 영장을 발부했다. 또 다른 다수 교회들에 대해서도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권력으로 종교를 억제한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종교를 적으로 돌리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율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행하려고 할 때, 정권의 몰락으로 치닫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선거법’ 때문이라고 하는데, 만약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여도, 굳이 현직 목사를 구속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또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처럼 전권을 휘두르는 특검이 90이 넘는 원로 목사를 특검에 출두시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법조계에서도 과거의 정권들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 종교인들이 설령 정치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국가가 바로 되기를 바라는 양심에 의한 것이지, 특정 정치를 옹호·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도 정권과 사법당국이 종교와 종교인을 함부로 대할 때, 결국은 정권이 막대한 부담만 떠안게 될 것이다. 헌법 제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을 말하지 않아도, 새 정부

동정

두상달 장로 마약예방부스 운영



(사)대학을위한 마약중독예방재활센터(이사장 두상달 장로)가 최근 서울 양재천 영동3교 아래에서 열린 ‘2025년 양재천 뜻자리 자원봉사 축제’에서 마약예방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 강남구가 주최하고 강남구자원봉사센터가 주관했다. ‘주민이 만드는 ESG 대축제’라는 주제로 32개 부스에서 봉사자들과 구민이 함께했다.

이태희 목사 성역 50주년



(사)민족복음화운동분부는 오는 9월 28일(주일) 오후 4시 서울시 동대문구 성북교회 본당에서 ‘이태희 목사 부흥성역 50주년 및 팔순 기념 감사예배’를 개최한다. 이번 감사예배는 한국교회 부흥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지난 50여 년간 헌신해 온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겸 2027 8월만 민족복음화대선교회 총재 이태희 목사의 사역을 돌아본다.

손현보 목사 구속 유감



감사원장을 지낸 부장판사 출신 최재형 전 의원이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현행 공직선거법의 적용과 해석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구속이 지나친 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임다윗 목사 손현보 목사 구속 우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구속과 관련한 입장을 12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입장문에서 “과연 구속까지 필요했는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손 목사는 그동안 집회와 발언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이어왔다.

스포츠 선교회 걷기동우회 모임안내



군산 황금어장 전경



▶ 일시 : 2025년 9월 18일(목) 낮 12시

▶ 장소 : 황금어장 2층 예배실
군산시 지곡동 521 2층

TEL: 063-464-2266, 010-2336-2537

▶ 대상 : 본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로서 교단을 사랑하고 교단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

▶ 문의 : 정영진 목사 010-3590-3156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자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8월 21일(목) 오전 11시 순복음갈릴리교회(담임 정영진 목사)에서 8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엡 4:3)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었으며, 지방회 소속 목회자와 교회가 함께 모여 교제와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살롬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황연선 목사(순복음복있는교회)의 대표기도, 천준영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고후 10:3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악과의 타락에서 벗어나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신앙인은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



며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한다"고 권면했다.

이어 다함께 합심기도와 최계순 목사(은혜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찬송 615장(그 큰일을 행하신)을 봉헌 찬양으로 드렸다.

예배 후 광고와 교제의 시간을 가진 후, 참석자들은 찬송 191장(주님 다시 오

실 때까지)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다. 마지막으로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영진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부산지방회는 매월 정기월례회를 통해 소속 교회와 목회자들의 영적 연합과 협력을 다져가고 있으며, 지역복음화와 교단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서울중앙지방회

서울중앙지방회(회장 김진영 목사)는 지난 9월 1일(월)부터 2일(화)까지 1박 2일간 숙주 한화리조트에서 8월 월례회 및 야외예배를 드리며 회원 간의 교제를 나누고 영적 충전과 쉼의 시간을 가졌다.

첫날 일정으로는 고성 화진포에 위치한 '서우드 홀 문화 공간'을 방문하여 의료 선교사 서우드 홀의 헌신적인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결핵 퇴치를 위해 세워진 구세결핵요양원과 자금 확보를 위해 발행했던 크리스마스 쉼의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고 선교적 사명을 다시금 되새겼다.

이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반공 정신을 일깨운 이승만 대통령 별장을 방문하여 그의 유품과 관련 자료들을 관람하며 나라와 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진숙 목사(오병이어교회)의 사회로, 이기성 목사(번성하는교회)의 기도 후 서흥원 목사(좋은이웃교회)가 '축복의 땅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신 8:1-2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서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 오전예배는 김진숙 목사의 사회, 정예스터 목사(예수왕기교회)의 기도 에 이어 지방회 부회장 이은혜 목사(성령

충만한교회)가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막 16:17-18)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며 영적 회복과 치유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도전했다.

예배 후 회원들은 숙주 일대 관광을 하며 교제와 휴식을 나눈 뒤 귀가했다. 참석한 회원들은 "이번 월례회와 야외예배를 통해 영적인 은혜와 함께 쉼과 회복을 경험했다"며 "지방회가 더욱 하나 되어 지역 복음화와 교단 발전에 힘써 나가겠다"고 고백했다.

2025년 WEA 서울총회 반대 성명서

“WEA는 교리를 불문하고 모이자고 나서며 로마 가톨릭과 WCC의 수하노릇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10가지 불가 사유’

2025 WEA서울총회반대연합회 신학위원회(위원장 문병호 교수) 주최하고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와 2025 WEA서울총회 반대 연합회(대표회장 맹연환 목사), 그리고 한국WEA반대 목회자·성도연합회(대표회장 조덕래 목사)가 후원한 ‘WEA 서울총회 개최 반대 신학자 기자회견’이 9월 15일(월)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다음은 WEA 서울총회 반대 성명서 전문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국교회에 문안 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140주년과 평양대부흥 120주년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올바른 신학과 신앙을 견지하며 세계 교회사에 크게 새겨질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과 세속 조류 및 인간 사상으로 인하여 전례 없는 도전에 맞서고 있습니다. 작금 2025년 10월에 개최를 추진 중인 WEA(World Evangelical Alliance, 세계 복음주의연맹) 서울총회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으며 많은 교회와 성도가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마 7:18)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WEA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서울총회가 불가함을 알리며, 그것을 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WEA 서울총회는 그 개최 자체가 불가합니다. 서울총회를 주도하는 사랑의교회(오정현 담임목사)는 그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WEA에 가입해 있지도 않음에도 이 총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례가 없습니다. 예컨대, 2013년 WCC 제10차 부산총회를 명성교회(당시 김삼한 담임목사)가 주도한 것은 그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WCC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교회가 그 총회가 교단이 가입하지도 않은 세계 기구의 총회를 주최한다는 발상 자체가 불가하고, 중대한 월권이며, 권한남용이라고 볼 것입니다.

둘째, WEA는 복음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복음을 변질시키는 신복음주의자들의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보수교단은 WEA에 동조하거나 가입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OPC(Orthodox Presbyterian Church, 정통장로교회)를 비롯해서 PCA(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미국장로교)와 RPCNA(Reformed Presbyterian Church of North America, 북미 개혁장로교회)도 WEA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이 두 교단은 한때 NAE에 가입했다가 탈퇴했습니다. PCA는 NAE의 행위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22년 탈퇴했고, RPCNA는 NAE가 “기독교인

교인과 무슬림이 함께 서명한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사랑하기(Loving God and Neighbor Together)’라는 문서” 때문에 2009년 탈퇴하였습니다. NAPARC(The 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 북미개혁교회협의회) 회원 교단들 가운데 NAE에 가입해 있는 교단은 없습니다. 미국의 침례교도 보수적인 교단들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WEA의 신학적 정체성은 “신학위원회(Theological Committee, TC)”에서 결정되는데, 그 위원장을 역임했던 브루스 니콜스(Bruce J. Nicholls), 롤프힐레(Rolf Hille), 토마스 슈트마허(Thomas Schirrmacher)는 자유주의 신학과 신성통주의 신학에 개방적이고, WCC와 협력을 추구하며, 상황화 신학을 수용하며, 로마가톨릭에 친화적인 인물들로서 WEA의 신복음주의 노선을 강화해 왔습니다.

셋째, WEA는 성경의 영감과 무오 및 유일한 권위와 자증성(自證性)을 거부합니다. WEA는 헌장을 채택할 당시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무오”(無謬, inerrancy)와 “무류”(無謬, infallibility)”논쟁에서 “무류”의 편에 섰는데, 이는 ‘성경 자체가 아니라’ ‘성경 적용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는 입장으로’, 칼빈(John Calvin), 바빙크(Herman Bavinck), 위필드(B. B. Warfield) 등 정통 개혁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성경 영감과 성경 자증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주의 성경 비평을 받아들이고 신성통주의 성경관에 얽려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하여 박형룡 박사는 WEA가 “성경에 대한 파괴적 비평”을 감행하고 “신자유주의 운동”을 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의 성경유오설(有誤說)”로 건너가는 데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WEA가 “무류”를 내세우는 데는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교황과 교회의 무류성”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로마 가톨릭과의 지속적인 긴밀한 대화와 일치화를 위한 연례입니다.

넷째, WEA는 WCC(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협의회)와의 교류와 협력 및 일치를 강화하고, “예큐메니칼 동참”(ecumenical participation)을 운운하며 WCC와 더욱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WEA는 초기부터 WCC와 회원권을 공유한 사람들이 다수를 점하였습니다. 2013년 WCC 제10차 부산총회는 WEA가 WCC와 동류이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입장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WEA는 ‘CC 예큐메니칼 해석’에 동조하여 성경의 권위를 전통에 따른 해석에 종속시키고, WCC의 “EM 문서”라고 불리는 “세례와 성찬과 직제(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문서”에 제시된 성례주의적 교회 일치 개념에 우호감을 드러냄으로써 개신교의 교리적 근간에서 먼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째, WEA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 역적 사업을 로마 가톨릭과의 “예큐메니칼 대화(ecumenical dialogue)”를 통하여 신학과 활동에 있어서 협력과 일치를 이루는 데 두었습니다. 로잔대회(The Lausanne Congress) 이후 WEA 신복음주의자들과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의 신학적 소통이 “복음주의-로마 가톨릭 선교 대화(Evangelical-Roman Catholic Dialogue on Mission, ERCDOM)”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이 “복음주의-로마 가톨릭 선교 대화, 1977-1984: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WEA 신학자들과 로마 가톨릭의 PCPCU(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기독교의 하나된 증진을 위한 교황위원회) 모임이 계속되었으며, “교회, 복음화, 코이노니아의 결속: 가톨릭 교회와 WEA의 국제회의 보고 서(1993-2002)”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로마 가톨릭이 제안한 “새로운 복음화(the New Evangelism)”개념을 받아들여 천명한 성명서 “복음주의: 복음주의 신앙의 특성”이 작성되었습니다. WEA와 로마 가톨릭은 서로 간의 신학적 일치를 위하여 “복음주의자들과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이 함께: 세 번째 천년기의 기독교신교(Evangelicals & Catholics Together, 약칭 ECT)”라는 이름의 모임을 계속하였습니다. 이 회의들을 통하여 로마 가톨릭의 성경론, 신인합력(神人合力) 구원론, 마리아론을 논의하였고, 기독교 밖의 구원과 강제 개종 금지 등에 대한 입장 수렴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작금 WEA는 로마 가톨릭 교구에 WEA의 완전한 회원권을 주는 것을 “원리적으로(in principle)”생각할 수 있다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섯째, WEA는 신학과 교리를 불문하여 세계 교회의 일치화를 도모하는 포용주의와 혼합주의를 넘어서 다원주의로 향하는 예큐메니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기독교포럼(Global Christian Forum, GCF)은 WCC와 로마 가톨릭과 WEA가 중심이 되어 신총교회들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도 대거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예큐메니칼 운동’을 천명하고, 교리를 묻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종교다원주의를 노골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GCF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와 함께 “우리의 공동 신앙(Our common faith)”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WEA는 WCC-로마 가톨릭 사이의 삼자 대화와 GCF 등의 활동을 통하여 점차 복음주의의 웃은 벗어 버리고 예큐메니즘의 웃을 입게 되었는데, 그 결과물이 로마 가톨릭과 WCC와 WEA가 5년간의 연구 후에 2011년에 공표한 “다종교 세계의 기독교 증언: 행위를 위한 권고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다원 세계에서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표방하고 다른 종교에 대한 호혜를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복음 전도와 선교의 유예를 선언하였고,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드러납니다.



이런 조류에서 2019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WEA 총회에서는 “기독교인뿐 아니라 모든 이의 종교적 자유를 지지한다.”라고 선언하였고, 2020년 4월에 발행된 WEA 뉴스레터에서는 종교 자유 문제를 다루기 위해 무슬림과의 협력을 시작했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일곱째, WEA의 신학과 활동에 있어서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보수신학을 대변하는 박형룡 박사, 정성구 교수, 서철원 교수 등에 의해서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박형룡 박사는 WEA의 전신인 NAE(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국가복음주의자협회)를 신복음주의, 신자유주의, 예큐메니칼주의자들의 모임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박형룡 박사는 WEA가 “신복음주의의 조직적 전선”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교리적 오판에 타락한 교회 안에, WCC 예큐메니칼 협의의 밑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유주의 이단을 묵인 내치 선포하는 사이비 보수주의자들의 단체”이며 “신이단”인 신복음주의를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박형룡 박사는 WEA(NAE)의 초기 200만여 명의 구성원 중 대다수가 WCC 예큐메니칼 운동과 관련된 교회들의 회원들이라고 지적하였고, WEA가 “절저한 정통주의의 근본주의에 대해 가혹히 비평하므로” 전적으로 정통적인 교리체계를 수락하는 자가 아니요, 신성통주의와 자유주의를 향해 움직이는 자임을 스스로 나타낸다.”라고 하면서, “신복음주의”는 “허울 좋은 이름”일 뿐 실상은 “신자유주의 운동”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서철원 교수는 WEA가 특별은총 의의 일반은총에 따른 보편적 구원을 주장한다고 비판하였고, 정성구 교수는 WEA와 WCC의 많은 회원이 중첩되며 WEA가 WCC에 동조함으로써 정통적인 신학을 떠나 포용주의로 나아간다고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여덟째, 본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제44회 총회(1959)에서 WEA를 설립한 NAE도 탈퇴하기를 가결하였고, 제106회 총회(2021)에서도 WEA에 대한 명확한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결의를 ‘유보’하라고 재차 확인하였는데, 본 교단에 속한 개교회가 이 결의를 무시한 채 WEA 서울총회를 유지하는 것은 중대한 총회 결의 위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1959년 제44회

총회에서 WCC 영구 탈퇴를 결의한 후, “AE 회원은 총회와는 직접으로 관계가 없으나 총회를 어지럽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편이 있으니 교적자(목사, 전도사)는 탈퇴하기를 가결”하였습니다. 이후 본 교단은 2018년 제103회 총회 때부터 2021년 제106회 총회 때까지 WEA와의 교류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그 최종 결정은, “그러므로 WEA는 그 신학과 그 구성원과 사역이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개혁신학이 아닌 포용주의와 신복음주의이므로 본 교단과 그 구성원은 WEA에 가입 또는 교류, 협력해서는 안 된다.”(106회 총회 보고서 2021, 507-509쪽 참조)라는 WEA연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 서전주 노회장 배진을 씨가 현의한 WEA 교류 관련 제104회 총회결의 유지 현의의 건은 WEA에 대한 명확한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결의를 유보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것을 권고하기로 가결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WEA 찬성측에서는 재차 거론하기를 요구했으나, 총회에서다시 “유보”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제44회 총회 결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바, 현재까지 최종 판단은 “유보”입니다. 따라서 WEA 서울총회 찬성측에서 합동총 교단이 교류 단절을 금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중대한 왜곡입니다.

아홉째, WEA의 이러한 정치는 그 회원들, 무엇보다 의장 및 사무총장, 분과위원장, 기구 대표자, 관계 신학자들의 면면을 통하여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들 중 대수는 WCC 회원을 겸하고, 로마 가톨릭과의 우호를 과시하며, 최근에는 이슬람교와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WEA 대표자들과 실무자들의 이러한 행보는 갈수록 더 과격하고 노골적이어서 심지어 그 내부에서조차 유럽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반감이 표출되었습니다. 현재 WEA 의장 굿윌 샤나(Goodwill Shana)는 “사도”라 칭하며 정규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그 자신의 신학적 근거 자체가 전무하거나 모호하고 신사도 운동과 종교다원주의 및 이단성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샤나는 자신을 “케네스 E. 해긴(Kenneth E. Hagin)의 아들”이며, 해긴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영적 아버지라면서 해긴파라 했습니다. 케네스 해긴은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의

사역으로 부르셨다”면서, “나는 국제적인 선지자”라 했습니다. 사도(목사, 주교) 굿윌 샤나 박사는 신사도 운동가 신디 제이콥스와 함께 Empowered21의 정회원이며, 아프리카사도협의회(CAA) 짐바브웨본부 설립 멤버였고, 2025년 9월 현재까지 그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열째, WEA 서울총회 주제인 “모든 이에게 복음을 2033을 향하여”(The Gospel for Everyone by 2033)는 로마 가톨릭이 선도하는 “글로벌 2033”Global2033)의 주제와 같습니다. 또한, 신사도 운동 단체인 “mpowered21”이 추구하는 2033년 비전과도 유사함을 보입니다. 이로써 WEA가 그동안 추진해 온 로마 가톨릭과의 연합과 일치 및 근대 신사도주의자들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백일하에 드러나므로, 그동안 WEA 반대측은 WEA 추진측에 대하여 공개 신학토론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WEA 추진측은 이를 거부하고 일부 매체들이나 자기편을 지지하는 모임을 내세워 자기들의 입장을 아전인수격으로 변명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WEA 추진측은 공명매체를 통한 공개 토론에 몇몇하게 임하지가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교회와 성도의 알 권리를 마땅히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역사 가운데 진리 사수와 복음 전파를 위해 생명 바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리가 바로 사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교리가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입니다. WEA는 교리를 불문하고 모이자고 나서며 로마 가톨릭과 WCC의 수하노릇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WEA는 진리 문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사상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과 일치를 추구하며, WCC 예큐메니칼 사상과 운동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WEA와 그 어떤 연합사역을 진행해서도 안 되며, WEA 서울총회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WEA는 신학과 구성원과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일절 교류, 협력, 가입을 금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15일

WEA서울총회개회반대연합회
신학위원장 문병호 교수, 신학위원
서창원 교수, 김호욱 교수, 양진영 교수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5 여교역자국 추계수련회

주제 시대를 분별하는 기도의 일꾼(삼상 12:23, 대하 7:14)

- | 일시 | 2025년 10월 13일(월) ~ 10월 15일(수)
- | 장소 | 대림벤엘교회 평창수양관
(주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1길 21-12 / ☎033-334-0555)
- | 참석대상 | 전국여교역자
- | 문 의 | 재정부장 최정희 목사 (010-7592-5575)
홍보부장 안선자 목사 (010-9002-3169)
- | 참가비 | 2만원(숙식 대림벤엘교회 섬김)
- | 계좌번호 | 농협 356-1626-0870-93(조영란)

2025년 여교역자국 추계수련회 일정표				
	13일(월)	14일(화)	15일(수)	
06:00~07:30		새벽예배 설교: 이복순 목사 사회: 조은혜 목사 기도: 황연선 목사	새벽예배	
07:30~09:00		아침식사	아침식사	
09:00~09:30		평창 600마지기 탐방	코이노니아	
09:30~10:30				폐회예배 설교: 정부용 목사 사회: 최정희 목사 기도: 김종애 목사 헌금기도: 배길선 목사
10:30~11:00				
11:00~12:00				
12:00~12:30				
12:30~14:30		점심식사	점심식사 후 귀가	
14:30~15:00		영상		
15:00~16:00				접 수
16:00~17:00	개회예배 설교: 총회장 엄하석 목사 대표기도: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 사회: 조병희 목사 헌금기도: 최정희 목사			
17:00~18:00				
18:00~19:00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19:30	부흥회 설교: 한순남 목사 사회: 안선자 목사 기도: 표현자 목사			
19:30~		부흥회 설교: 조영란 목사 사회: 이복순 목사 기도: 김희자 목사		



초대의 글



국장 조영란 목사
대림벤엘교회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가을빛이 깊어가는 계절, 주님의 부르심 따라
흠어져 수고하던 마음들이 함께 모여
심과 기쁨을 나누려 합니다.
여교역자수련회는 지친 사역에 작은 위로가 되고,
서로의 이야기가 소망이 되어
다시금 걸어갈 힘을 얻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 안에서 웃고 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음 다해 초대합니다.

여교역자국 국장 조영란 목사 올림

장소로 섬겨주신 대림벤엘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엄하석 목사
주성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벤엘교회



자문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전임국장 탁정신 목사
온선교회



직전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국장 조영란 목사
대림벤엘교회

조직

임원단

전국지부장

예배부장



기장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복지부장



진리와사랑교회
이복순 목사

봉사부장



군업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홍보부장



대전대화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재정부장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행정부장



추계교회
김찬애 목사

친교부장



순복음은혜와사랑의교회
조은혜 목사

서울중앙지방회



예수향기교회
정애스더 목사

서울중부지방회



은혜교회
정해란 목사

서울강남지방회



순복음사랑교회
이현옥 목사

서울남서지방회



주사랑 순복음교회
이주안 목사

경기지방회



복음교회
이옥희 목사

경기중앙지방회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경기남서지방회



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표현자 목사

경기북지방회



예수사랑교회
예정희 목사

경기남지방회



반석생물교회
배길선 목사

일산지방회



늘행복한교회
신중임 목사

대전지방회



새로와지는교회
김희자 목사

충북지방회



은혜서원교회
장성미 목사

충남지방회



예수사랑교회
한정숙 목사

청주지방회



행복한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경남지방회



순복음 사랑의교회
최명애 목사

영남동지방회



순복음은혜교회
이순애 목사

부산지방회



순복음복있는교회
황연선 목사

광주지방회



은혜의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호남지방회



순복음예찬교회
홍광희 목사

은진지방회



은혜와진리교회
심연숙 전도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조영란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13차 전국사모회단합대회

주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2:10)

강사

모시는 글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엄하석 목사
주성교회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모님들께 문안드립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의 은혜로운 계절을 맞아,
사역의 현장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묵묵히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사모님들을
제13차 전국사모회 단합대회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올해 대회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2:10)
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전국의 사모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한국교회와 가정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자리를 통해 모든 사모님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쁘신 사역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더욱 굳게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가정과 교회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사모회 회장 손선희 -

| 일자 | 2025년 10월 20일(월) 오후 2시 ~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031-227-599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120 (왕림2길 76)

| 대상 | 교단 산하 전국 교회 목회자 사모

| 후원 및 회비계좌 | 농협 351-1360-4767-73 (김길순, 사모회 재무)

*각 지방회 및 지방회장 사모님들은 매월 1만원(년 12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 주세요~

| 문의 | 총무 김세희 사모(010-2610-3816)

교문



최혜선 사모
기흥순복음교회

교문



김양숙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회장



손선희 사모
홍제은혜교회

2025 전국사모회 전임회장단

전임회장



김양란 사모
포항안대음교회

전임회장



차경애 사모
진주은평교회

전임회장



신동신 사모
청신교회

전임회장



차추련 사모
안동성곡교회

전임회장



윤금자 사모
전주은혜와진리교회

전임회장



김귀순 사모
아세아순복음교회

전임회장



신명희 사모
부강순복음교회

직전회장



감사 이을순 사모
갈릴리큰소망교회

2025 전국사모회 임원진

수석부회장



황인경 사모
주성교회

제2부회장



조은숙 사모
경찰청교회

총무



김세희 사모
괴산순복음교회

부총무



황복란 사모
사랑의공동체교회

서기



김재희 사모
색종이교회

부서기



이재선 사모
주논교회

회계



나명숙 사모
상주반석교회

부회계



이순선 사모
시온순복음교회

재무



김길순 사모
순복음성산교회

제13차 전국사모회단합대회 일정표

	10월 20일(월)	10월 21일(화)	10월 22일(수)
08:00~09:00		아침식사	아침식사
09:00~09:30			찬 양
09:30~10:30		대부도 산책 (바다향기수목원)	폐회에배 직전총회장 김영준목사 (갈릴리큰소망교회)
10:30~11:00			정 리
11:00~12:00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등록, 방배정		
15:00~15:30	찬 양	바다체험, 교제 전원성전으로 이동	
15:30~16:30	개회에배 총회장 엄하석목사 (주성교회)		
16:30~17:30	O.T.		
17:30~19:00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19:30	찬 양	찬 양	
19:30~21:10	강 의 안병찬목사 (순복음참아름다운교회)	간증과 나눔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회

후원 : 총회 및 각 지방회

한원총, 새 대표회장에 엄기호 목사

“선후배 원로목사님들 위해 헌신하겠다” 다짐



(사)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 중앙회 본부(대표총재 김호일 목사)는 지난 9월 8일(월) 오전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소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제3대 대표회장 박장옥 목사 이임 및 제4대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한국원로목자교회 담임 김마리 목사 사회로 상임회장 현광희 목사의 대표기도, 원로목자 찬양대의 찬양, 회계 윤봉순 목사의 성경봉독, (사)한기총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고 목사는 눅 5:8 말씀을 본문으로 '일게 나부렘 이: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원로목사님들의 힘이 컸다. 목회자의 사역은 끝이 없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앞으로도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예배는 계속해서 카리스스교단의 특별연주, 부회계 유금자 목사의 봉헌기도, 후원회 회장 이주태 장로의 광고 후 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 총재 양창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진 2부 취임식은 수석공동회장 김원제 목사의 사회로 대표총재 김호일 목사의 환영사, 이임회장 박장옥 목사의 이임사, 수석공동회장 곽문자 목사의 신임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의 약력소개 후 대표총재 김호일 목사가 신임대표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엄기호 대표회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부족하고 보잘것 없는 저에게 대표회장이라는 직책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 원로 선후배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임기 동안 원로목사님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 고문 임화영 목사, 총재 신동진 목사, 나라사랑국가조찬기도회 대표회장 박종철 목사가 축사를 통해 대표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12년 투석 끝에 신장이식 받은 환자에게 수술비 지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간 투석치료로 경제활동조차 어려운 이웃 도와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유재수)는 지난 8월 25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김 모 씨(1961년생, 남)에게 수술비 3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은 뒤 복막투석과 혈액투석을 이어가며 무려 12년간 이식 기회를 기다려왔다. 특히 혈액형이 O형이라 공여자 범위가 제한되어 대기 기간이 길어졌으며, 장기간의 투석 치료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조차 어려워 생활고를 겪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31일, 한 뇌사 장기기증인의 희생과 헌신으로 신장을 이식받은 김 씨는 현재 건강을 회복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그간 투석 치료로 인해 사회생활이 막히고



하루하루가 버거웠는데, 신장이식을 받은 뒤 소변이 잘 나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며 감사

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뇌사 장기기증인과 가족들이 내게 제2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 그 송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는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해 6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을 망설이는 환자들을 위해 '각막·장기기식 수술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막이식은 최대 300만 원, 장기이식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후원자들의 정성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본부는 앞으로도 환자들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신대학교 미국 뉴멕시코주 나바호원주민에 단기선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전해

아신대학교(총장 정홍열)는 2022년부터 매년 미국 뉴멕시코주 나바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단기선교를 진행하고 있다.

'USACTS'란 팀 이름으로 올해는 8월 8일부터 24일까지 본교 학부 재학생 및 신학대학원 재학생 총 12명(인솔자 포함)이 참여했으며, 뉴멕시코주에서 나바호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Christian Vision Academy(대표 이덕재 선교사)와 함께 단기선교를 진행했다.

나바호 원주민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나바호 원주민은 미국 남서부 지역에 거주해

온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으로 가장 큰 부족으로 애리조나주, 뉴멕시코, 유타 지역에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선교팀이 사역하는 뉴멕시코 지역은 도시와 분리된 척박한 사막 지역으로 인터넷, 휴대폰 등의 통신이 원활하지 않고, 정부 지원으로 최소 생활은 유지되고 있으나, 마약, 성문제, 가정해체 등의 문제가 심각하며 본토를 상실하고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현실에 정체성 상실과 삶의 희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선교' 치열한 경쟁률을 통해 선발된 단기선교팀들

은 영어 찬양과 기도, 복음 전도를 위한 영어 회화, 태권도 드라마, 워십 댄스, 복음팔찌 만들기 등의 활동 등을 준비하며, 릴레이 급식기도, 기도편지, 사역을 위한 모금 활동 등을 펼치며 선교를 준비하였다.

40도에 육박하는 더운 사막 기후였지만, 단기선교팀은 나바호 원주민 가정들을 방문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나라 복음을 서툰 영어지만 전파하고, 함께 중보기도를 드리며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전하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원을 찾아 찬양 버스킹을 하고, 태권도 드라마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였으며 노숙인들을 찾아 희망을 잃지 말도록 격려하고 기도 사역을 진행했다.

창조과학세미나, 선교사·목회자 대상

한국창조과학회 “과학주의 시대, 창조 신앙으로 세상을 보다”

한국창조과학회(회장 하주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선교사 및 목회자 대상 창조과학 세미나를 올해부터 다시 재개하며, 9월 20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한성아트홀(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54, 혜화역 인근)에서 '제9회 선교사와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과학기술과 신학의 다양한 이슈를 성경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선교 현장과 목회 사역에 실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특히 국내 유수 대학 교수진이 연사로 나서 과학주의 시대의 창조 신앙, 인공지능(AI)에 대한 교회의 시각, 유신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주요 강의를 ▲'기독교 세계관과 과학주의 시대의 창조 신앙'(류현오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인공지능(AI) 시대, 교회와 성도의 바른 관점'(유혁 교수, 고려대학교) ▲'유신진화론에 대한 교회와 성도의 바른 대응'(김병훈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빅뱅 우주론에 대한 과학



적 비판'(권진혁 교수, 영남대학교 물리학과 명예교수) ▲'창조과학회 최근 사역 및 어린이 교재 활용 사례'(오경숙 본부장, 한국창조과학회)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이번 세미나가 선교지와 지역 교회에 큰 유익과 도전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을 섬기는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광활한 바다, 복음의 항구...목자의 집

끝없는 창고를 향해 매아리 되네. 행복의 두 날개여 비상하라. 푸른 창공 희망의 포구를 향하여...아 푸른 물결 절제된 속삭임이여, 애타랴드에 취해 그대의 자태 하늘빛 되었네. 그리고 한 폭의 수채화 태고의 그리움 바다는 여름을 품고 파란 숨결로 나를 적신다.

흐르는 흰 구름 먼 여행을 위해 지친 걸음 수평선 걸쳐 잠시 쉬어 가세. 광활한 해변 위 모래알 마다 네 이름이 쓴듯 반짝거리네. 우리 바다 긴 호흡이여, 구름은 멀리서 노래를 읊고 은은한 파도는 나의 꿈을 끌어안는다.

보라 구도자여! 잊혀진 계절, 그 안에서 나는 다시 노래가 되었고 너는 내 바다의 바람이 되어 조용히 내 곁을 지나간다. 그대여 부디 멈추지 않기를. 오늘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눈을 감고 주의 영광과 평

화 긴 시간을 다해 예수님의 향기로 한 송이 꽃을 피우리라.

아산 목자의 집의 노촌 장로님과 동생 장로님, 참으로 귀하다. 평생 그늘진 곳을 향해서 눈물로 보듬고 씨를 뿌리는 그 모습 속에서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숙연해진다. 재소자들을 돌보시고 특히 한국교회 어려운 실정이라, 은퇴목회자들...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또한 선교사님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수급자의 소량의 금액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매일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섬기시는 스태프들, 특히 이사장 박태상 선교사님과 최 권사님의 사랑의 손길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내 집 보다 더 쉽고 닦으며 최선을 다해서 식사를 제공해 주는 엄마와 같은 사랑의 손길이다.

주위에 노후대책이 준비되지 못한 분들은 공기 좋고 물 좋은 풍경 아산 목자의 집을 찾으시라. 멋진 노후를 편하고 기쁘게 보내실 것이다. 가족세트전도 총재 박영수 목사와 함께 삼천리 방방곡곡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가족세트전도훈련을 통해서 교회들이 살아나기를 바란다.

집회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어려운 분들을 추천해서 그들이 전도하며 남은 여생을 보낸다면 얼마나 값지고 보람 있을까..

가족세트전도 총괄 사무총장 이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아산 목자의 집 전경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엄하석 고 시 위 원 장 목사 이석호
총 무 목사 오세준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경진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명예대표·논설고문,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요즘 중·고등 학생들 중에 장래의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진로교육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장래희망이 ‘없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중학생 34.4%, 고등학생 32.3%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장래 희망이 없어요’라는 말이 얼마나 불행한 대답일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장래의 희망을 위하여 어느 고등학교를 가겠느냐?는 질문에 힘 빠지는 답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없어요’ ‘점수되는 대로요’ 그리고 심하면 ‘아 짜증나’입니다. ‘그런데 왜 학교를 다니냐?’에 대한 물음에 대부분 ‘그냥 다니는 것’이라는 대답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어느 계열의 고등학교에 가겠다고 말하는 학생은 10%정도이며, 나머지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학교 다니는 정도라고 합니다.

누가 우리 학생들의 희망을 빼앗아간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희망을 심어주지 않은 것입니까?

꿈이나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은 외부적인 자극에 의하여 내면에 강하게 자리잡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일깨워줌’의 영향이 큼니다. 또한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듣는 중에 생겨나기도 합니다.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적인 환경도 영향을 줍니다.

교육이란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희망’을 이루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것’이듯 꿈도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교회는 교회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에서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희망’을 이루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왜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왜 의사나 간호사가 되어야 하는지, 왜 복음전도자가 되려고 하는지, 왜 기업가가 되어야 하는지, 왜 정치가가 되어야 하는지, 왜 과학자나 기술자가 되어야 하는지, 왜 운동선수가 되려고 하는지, 그 외의 직업이나 인물에 대하여도 왜?에 대한 답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꿈은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의 꿈에 대하여 소개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나 기성세대가 자녀들에게 희망을 선물하지 않으면서도 자녀들의 장래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와 414생활관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훌륭한 신앙과 인성, 그리고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인재들로서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과 세계를 품고 일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은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공동체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학생들이 희망으로 빛나는 눈동자를 보는 것은 현재도 기쁨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시 37:4)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이 밤에

자작... 자작...

창 너머로 들려오는 빗방울 소리

삶의 짐을 내려놓고 쉬는 이 밤에

감미로운 그 소리에 귀가 열리네.

빗물 위를 지나는 자동차 소리

눈을 감고 들으니 아름다운 멜로디

닫혀 있는 내 마음 활짝 열리네.

자작... 자작... 췌아...

그 소리 내 마음 깊은 곳 열여

나 있는 곳 주께서 골방 만드사

연약한 나의 무릎 꿇게 하시네.

빗줄기 타고 오신 성령님

회개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시어

눈물 비 쏟아내니 개운하구나.



자작... 자작...

창문 젖혀 손 내밀고 악수 청하니

반가운 양 손등타고 나를 적시고

흐어진 내 마음 하나로 묶네.

모두가 곤히 잠든 깊은 이밤에

가로등 친구삼아 조잘거리며

잎새들은 묵묵하듯 부산을 떠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5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영합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http://gd.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5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명.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31)944-518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http://gd.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 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영합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http://gd.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